

지역활력타운 공모 유치 총력

최영일 순창군수, 국토부 방문 사업 필요성·기대 효과 설명

순창군이 2025년 지역활력타운 공모 사업 선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영일 순창군수는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김지연 정책관과 정순재 정세재 지역정책과장을 직접 만나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설명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 자리에서 최 군수는 순창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활성화 전략과 공모사업을 통해 창출될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입체적으로 제시하며 국토부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 냈다.

총사업비 247억 원이 투입될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진행되며, 주거시설과 생활 인프라, 필수 생활서비스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 생활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으로 추진되는 만큼, 지역 사회의 큰 관심을 받고 있



최영일 순창군수는 지난 12일 2025년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김지연 정책관과 정순재 정세재 지역정책과장을 직접 만나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설명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다.

군은 이번 공모 선정을 위해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 올해 1월과 2월 두 차례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순창을 주민 설명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또한, 국토부 사전 컨설팅과 전라북도 지역활력타운 전문위원 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검점하며 공모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공모사업은 단순한 주거 및 생활 인프라 확충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큰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순창=이양원 기자

옥정호 한우특화거리 임실표 명품 한우 맛집 오픈

‘옥정호 한우’ 준공식 개최

임실군의 대표 관광지인 옥정호 인근에 조성된 한우특화거리에 청정임실표 한우 음식점이 오는 15일 문을 연다.

군은 13일 옥정호 출렁다리와 봉어섬 생태공원 등이 소재한 운암면 한우 특화거리(쌍암리 526-13번지 일원)에 아산 차게 조성한 한우 음식점 ‘옥정호 한우’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준공식에는 심 민 군수와 장종



민 군의회 의장 및 의원, 기관·단체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옥정호 한우 음식점은 총사업비 38억원(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자하여 부지면적 2,624㎡, 연면적 800㎡에 단층 규모로 세워졌으며, 한우 전문 음

식점으로 운영한다.

군은 옥정호 한우 음식점을 지역의 한우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한우 관광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우리 지역의 자랑스런 청정 자연에서 자란 최고 품질의 한우를 사용하며, 지역의 특색있는 맛과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한우 농가와의 상생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실=전충영 기자

남원시, 제2기 시민소통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남원시는 13일,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2025년 제2기 시민소통위원회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시민소통위원회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2023년 제1기 30명의 위원으로 시작,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24년 7월 위원 10명 증원과 함께 청년희망분과를 신설해 소통을 강화했다.

제1기 위원회 5개의 분과 40명 위원

은 연 6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분과회의를 수시로 운영해 각종 주요 시정 홍보, 주요 현안에 관해 시민과 소통하고 행정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등 남원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13일에는 제2기 시민소통위원 40명에 대한 위촉식이 진행되었으며,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출하고, 회의안건으로 제95회 춘향제, 승사교 유희부지 꽃 경관 조성, 남원시 주요시정 홍보



및 활성화 방안이 채택되어 관련 담당관과소의 사업 설명이 있었으며, 설명이후 분과별 다양한 의견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코레일관광개발 ‘맞손’

관광 자원 활성화·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위한 업무협약 체결

남원시는 코레일관광개발(대표 권백신)과 관광 자원 활성화 및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남원시의 관광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철도교통과 연계, 지속 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양 기관은 남원의 풍부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방문객들이 남원에서 더욱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합의했다.

이번에 따라 남원시는 코레일관광개발과 협력해 기존의 관광 자원과 새로운 관광지를 연계한 특색 있는 여행상품을 기획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현재 코레일관광개발 주관으로 운영되고 해랑열차는 고급형 여행상품 운영을 위해 최고급 서비스의 유람선(크루즈)과 같이 만들어진 레일크루즈 관광열차로, 2024년 7월 남원에 첫선을 보여 운영을 해왔으며, 2025년 1월과 2월의 매주 화요일(52명)과 금요일(72명)에 운영을 마치고, 하반기에(6월~11월)에도 남원 여행상품 운영을 추진을 한다.

남원 코스로 운영되는 해랑열차는 전국 일주 2박3일 코스로, 서울-남원-순천-부산-경주-동해까지 운영된다. 가격도 371만원(2인기준)~427만원(4인기준)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사회복지관, 2024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A등급’

남원시는 남원사회복지관(관장 강정아)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4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종합사회복지관(서울시 소재 복지관 제외)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실시되며,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다.

평가에서는 △시설 및 환경 △재정·조직 운영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자 권리 △시설 운영 전반 등 5개



영역에서 진행되었으며, 전문 평가단이 서류심사와 현장 방문을 병행하여 평가가 이뤄졌으며, 남원사회복지관은 각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고 등급을 받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어울림센터 개관... 원도심 활력소 기대

순창군은 13일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거점시설로 조성된 ‘어울림센터’의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 시설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순창읍 중앙로 일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아왔다.

2020년 11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4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어울림센터’는 2021년 8월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약 4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지난 2월에 완공됐다.

어울림센터는 총 4층 규모의 복합 공간으로, 1층에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과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넓은 잔디광장이 조성되어



있어 지역 축제나 주민 모임의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2층에는 군립도서관과 연결되는 연결통로가 설치되어 있고, 주민 활동을 위한 두 개의 공유회의실이 마련되어 있다. 3층에는 독서와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책원터가 조성돼 비쁜 일대에서 잠시 여유를 찾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안락한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4층에는 어울림터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야외테라스가 조성되어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 통

남원명품농업대학 제16기 입학식 개최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에서는 지난 11일, 2025학년도 남원명품농업대학 제16기 입학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입학식에서는 스마트팜 농업과 창업을 위한 현장 실습교육 강화와 청년농업인 양성에 집중하는 새로운 교육 방향을 선포했으며, 남원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127명이 농업 기술과 경영을 배우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남원명품농업대학은 이번 제16기 교육과정에서 스마트팜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스마트농업 기술과 농업 창업교육을 강화해 4차 산업 혁명에 발맞춘 스마트팜 분야의 전문가 양성에 집중하며,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생들은 실제 현장에서의 스마트팜 실습을 통해, 농업 기술을 습득하며 농업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일반과정인 포도반, 상추+토마토반, 한우반과 특별과정인 스마트팜 아카데미로 나뉘어 진행되며, 농업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 인재들이 될 신입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읍·면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성황리 마쳐

임실군이 농촌 여성리더 양성을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3일까지 12개 읍·면사무소에서 500여 명의 생활개선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과제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교육은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해 12개 읍·면을 순회하며 과제교육을 추진하여 생활개선회 회원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의 선두 주자로 양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특히 웃음치료 교육은 웃음치료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신덕면 삼덕교회 김은복 목사님을 초빙하여 여성농업인들의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웃음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알려줘 회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주방세제를 직접 만들어 보는 과제교육을 진행하여 회원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임실=전충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